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6/19/2022

22-26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Wh)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Corpus Christi)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루카 9,17/ Lk 9:17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굳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6월 / June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For families

We pray for Christian families around the world; may they embody and experience unconditional love and advance in holiness in their daily lives.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해)

The Solemnity of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He fed them with the finest wheat and satisfied them with honey from the rock.

【제1독서/First Reading】..... 창세 14,18-20 / Gn 14:18-20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You are a priest for ever, in the line of Melchizedek.

【제2독서 / Second Reading】..... 1코린 11,23-26 / 1 Cor 11:23-26

【부속과 / Sequence】 <성체 송가: 21-24>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 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says the Lord;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

【복음 / Gospel】† 루카 9,11ㄴ-17 / Lk 9:11b-17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says the Lord.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6/19 10am	6/19 3pm	6/21 7:30pm	6/22 10am	6/23 10am	6/24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울리안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블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신바로, 홍마리아고레띠, 주윤철 미카엘, 이정숙, 강이나시오, 김엘리사벳, 김동섭 비오, 임자경 카타리나		김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생미사(L)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조엔, 박우슬라 가정, 정윤정, 박마리아, 윤요세피나, 유재숙 카타리나, 김말가리다, 이마태오 가정, 박분도 가정, 윤젼마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성체성혈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은 부활 사건처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인데 '미사성체'가 바로 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미사를 통해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시어 우리에게 받아먹고, 받아 마시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성체성혈의 신비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년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짙어질 때 전세계의 모든 성당과 저희 본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미사는 가까스로 온라인을 통하여만 봉헌되고 신자들은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신영성체(神領聖體 an act of spiritual communion)만 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Drive through를 통하여 영성체를 각자의 차 안에서 영할 수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영성체를 영하는 분들의 두 손에 살포시 내려 놓여진 성체에 보고 감격해 하는 신자들의 모습과 흐느껴 우는 시는 분들을 보곤 하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성체성혈은 전염병의 두려움을 이겨낼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은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모든 인간을 위하여 희망의 성사를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의 몸과 피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듯해 보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뭔가 절망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줄 때, 마음속이 허전하거나 공허 할 때 성체가 모셔진 감실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때 마다 감실속에 계신 예수님은 희망을 주셨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으며, 저에게 깊은 평화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지내고 있는 성체 성혈 대축일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나눔'과 '희생' 그리고 '감사'의 형태로 들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김대선 신부

" 성체는 인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구세주 자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성심은 당신을 신뢰하며
찾아드는 이들을 자애롭게 맞아들이신다. "

- 복자 피에르 조셉 카상 -

Entrance Hymn: Eat This Bread

Refrain:

Eat This Bread, Drink This Cup, Come To Me And Never Be Hungry.

Eat This Bread, Drink This Cup, Trust In Me And You Will Not Thirst.

1. I Am The Bread Of Life, The True Bread Sent From The Father.

2. Your Ancestors Ate Manna In The Desert, But This Is The Bread Come Down From Heaven.

Responsorial Psalm:

You are a priest for ever, in the line of Melchizedek.

Sequence:

Laud, O Zion, your salvation, Laud with hymns of exultation, Christ, your king and shepherd true: Bring him all the praise you know, He is more than you bestow. Never can you reach his due. Special theme for glad thanksgiving Is the quick'ning and the living Bread today before you set: From his hands of old partaken, As we know, by faith unshaken, Where the Twelve at supper met. Full and clear ring out your chanting, Joy nor sweetest grace be wanting, From your heart let praises burst: For today the feast is holden, When the institution olden Of that supper was rehearsed. Here the new law's new oblation, By the new king's revelation, Ends the form of ancient rite: Now the new the old effaces, Truth away the shadow chases, Light dispels the gloom of night. What he did at supper seated, Christ ordained to be repeated, His memorial ne'er to cease: And his rule for guidance taking, Bread and wine we hallow, Making Thus our sacrifice of peace. This the truth each Christian learns, Bread into his flesh he turns, To his precious blood the wine: Sight has fail'd, nor thought conceives, But a dauntless faith believes, Resting on a pow'r divine. Here beneath these signs are hidden Priceless things to sense forbidden; Signs, not things are all we see: Blood is poured and flesh is broken, Yet in either wondrous token Christ entire we know to be. Whoso of this food partakes, Does not rend the Lord nor breaks; Christ is whole to all that taste: Thousands are, as one, receivers, One, as thousands of believers, Eats of him who cannot waste. Bad and good the feast are sharing, Of what divers dooms preparing, Endless death, or endless life. Life to these, to those damnation, See how like participation Is with unlike issues rife. When the sacrament is broken, Doubt not, but believe 'tis spoken, That each sever'd outward token doth the very whole contain. Nought the precious gift divides, Breaking but the sign Betides Jesus still the same abides, still unbroken does remain.

Closing Hymn: Lord, Who At Thy First Eucharist

Lord, who at thy first Eucharist did pray That all thy Church might be forever one,

Grant us at ev'ry Eucharist to say With longing heart and soul, "Thy will be done."

O may we all one bread, one body be, Through this blest Sacrament of Unity.

" In the first place, through the reception of the Sacrament of the Eucharist, Christ himself, the cause of grace becomes present in man."

- St. Thomas Aquinas -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Mass Time	해설/ Narrator	독서/ Readers	전례부/Altar Server	반주/Organist	봉헌/ Offertory
6/19 Sun 10am	김혜진세실리아	김요셉, 송울리안나	최클라라/오미카엘라	강마리미카엘라	
3pm		Fred Garcia Asela Garcia	김마지아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6/20 Mon	No Mass				
6/21 Tue	이명화데레사		박아가다	조울리안나	
6/22 Wed	박분도		안세실리아	김미카엘라	
6/23 Thurs	김소화데레사		최클라라	김미카엘라	
6/24 Fri	신모니카		김마지아	조울리안나	
6/25 Sat	No Mass				
6/26 Sun 10am	박세실리아	김요셉, 신모니카	김마지아, 안세실리아	강마리미카엘라	
3pm		Ester Le Blanc Grace Quiambao	김마지아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본당소식 / Parish News



◆ 전례단 모임 (Liturgy Leader Meeting)

일시(Date&Time): 6/19(일)

장소(Place): 양업관

◆ 전례부 모임 (Altar Server Meeting)

일시(Date&Time): 6/26(일)

장소(Place): 양업관

◆ 성인 복사 모집

문의: 김마지아 (303)-882-7022

◆ 6월 대축일 미사

-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 6/19(일) 10am
- 성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낮 미사: 6/23(목) 10am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6/24(금) 7:30pm
- 성베드로와성바오로 사도 대축일 낮미사: 6/29(수)10am

◆ 성체조배실 운영

사용시간:

화/수/목/금/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사제들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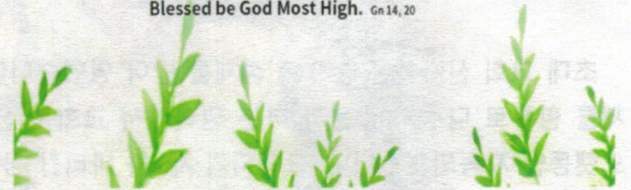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창세기 14, 20

Blessed be God Most High. Gn 14, 20



SUNDAY SCHOOL

▪ 주일학교 여름 캠프 Fundraising

판매: Fund Total as of 6/5: \$1,619

주일학교 여름 캠프 (Summer Camp)

7월 8일(금) - 7월 10일(일)

참가비: \$150/person

등록 마감: 6월 15일(수)

장소: 48480 foolish pleasure rd. Aguanga, CA 92536

대상: 1학년~9학년 (3학년 이하 부모참가 필수)

Building bridges : Renewing the sense of the community in the new heaven and earth.

새 하늘 새땅에서 공동체로 거듭남에 있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신앙의 연결 고리를 만들수 있는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부모님도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캠프 비용 모금을 위해 매주 주일학교에서 커피와 레모네이드를 판매 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6/12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736 (103명) 3pm: \$142 (26명) 2차헌금: \$760
교무금	\$740
Envelope	한현매, 이영송, 안요한, 김한엽, 윤선영, 한상우, 윤원균
감사헌금	\$200
Thanksgiving	윤선영
교구발전기금	\$
DDF	
합계	\$1,838
Total	

주보광고 / Bulletin Ad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Taiyos Sushi&Poki

951-343-1112

11120 Magnolia Ave., Riverside

(Westgate Plaza)

http://taiyossushi.com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교리상식 101

21. 성체를 손으로 받아서 영하는 것과 입으로 직접 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초대 교회 신자들은 손으로 성체를 받아 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성체에 대한 존경심과 신자들이 성체를 함부로 다루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교회는 신자들의 입에 사제가 직접 성체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 관습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경과 초대 교회의 실천으로 돌아가서 손으로 성체를 받아 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손으로 성체를 받아 영하는 것이 성체에 대한 공경심을 손상하는 큰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전하면서 예전처럼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영성체하기를 고집합니다. 교회 교도권이 정당하다고 허락한 사항에 대한 반기를 드는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 성체를 손으로 받아 모시는 결정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체에 존경심의 표시로나, 손이 더러워서 입으로 영성체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